

東 醫 心 學 礎 稿

金 度 淳 · 黃 義 完

아래 글들은 C.G.Jung 선생의 思想과 李濟馬 先生의 思想을 본인이 황의완 교수님의 指導下에 學習하는 과정에서 體得한 것을 整理한 것으로, 모든 引用文句는 이부영 교수님의 著書 <分析心理學> <回想 꿈 그리고 思想> 그리고, 朴爽彦 先生의 譯書 <東醫四象大典>에 기초한다.

整理方式은 心과 意를 重視하여 原文의 順序보다는 本意의 흐름을 重視함이며 이에 문제되어지는 문구는 차후에 원문에서 檢證하고자 한다.

<心理學이란 어떠한 진리의 眞假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人間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學問이다.>

여기서 人間이란 단어를 人間心理로 한정하면, 人間心理의 表面的 水準인 意識의 範疇는 內面的 無意識으로 擴充되어지기에, 人間心理는 人間이 經驗한 것, 認識한 것, 想像한 것까지 包括하게 되며 人間身體와 物質에까지 連繫되어, 다시금 包括的 意味가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心이 宇宙요 宇宙가 心이라는 飛躍論理의 妥當性을 본다. 이러한 心은 以上에서 보여 지듯이, 限定하기 어려운 抽象名詞이며 이를

圓으로 記號化하면 이를 太極이라 한다.

太極을 靜動으로 구분하여 陰陽으로 보는가, 天地人 三才로 나누어 보는가, 五行으로 나누는가, 六氣로 나누는가 하는 方法에 따른 학문의 체계화는 각기 그 흐름을 만들어 왔지만, 비슷한 시대에 東과 西의 두 先生은 四位로 나누어 체계화함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하였다.

圓을 四位로 나눔에 그 편벽을 피하면 圓과 正四角의 만다라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사각의 자를 가지고 미지의 圓인 心을 縱橫으로 分析하여, 생리적 변화를 糾明하고 병리적 변화를 豫測하여 病을 治療하고자 한다.

1. 心의 模型

우리는 觀測되어지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心의 모형을 추상할 수 있다.

心의 가장 표면은 意識의 수준으로, 우리가 항상 認知하는 부분이며 그 바탕에는 의식을 누적하여 象을 이루는 個人無意識의 층이 있고, 個人無意識의 바탕에는 人間の 본능 및 여러세대를 거치는 集團無意識이 있으며 集團無意識의 深部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神經精神科學教室

에는 인간이 인간 이전의 상태에서 가졌던 心도 포함된다.

여기서 Jung과 東武는 學問의 方向을 달리한다.

Jung은 集團無意識의 중심이 되는 原形으로, 東武는 個人無意識 次元을 中心으로 人間身體에 發顯하는 病證으로 각기 學問을 深化시켰다.

따라서 본인은 東武의 學問을 Jung의 論理를 빌어 現時代에 알맞는 言語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力動的 心の 模型을 위한 觀察에서 一例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男性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남성다움”에 우월한 가치를 두게 되면 여성다움은 個人無意識의 深層에 抑壓되게 되고, 반복되어지는 抑壓은 자체 에너지를 지닌 콤플렉스를 形成한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의식이 統制力을 잃거나 無意識의 힘이 상대적으로 強盛하여지면, 意識으로 氾濫하거나, 自己保護本能에 의하여 他人에게 轉移되어지고, 外界에 投射되는 등의 변화를 일으키며 무의식의 에너지도 그러하다. 결국 心理에너지가 억압 등에 의하여 循環이 정체되면 理性으로 조절되지 않는 病的 狀態를 惹起한다.

以上の 經路를 통하여 인간은 超越的 힘인 惡靈이나 魔鬼, 神靈 등의 外界 投射産物을 實存視하여왔고, 뚜렷한 이유없이 타인을 미워하거나 魅了되는 등의 異常心理現狀을 發顯하여 왔다.

의식은 無意識의 영향을 받아 歪曲되기 쉽고, 理性의 힘은 등불만치나 微弱하다. 하지만 우리는 自己分析을 통하여 편벽됨을 줄인 意識과 理性에 의지하여야만 한다. 그 이유는 意識만이 아는 것이고, 우리의 탐구는 善惡의 구별이 아닌 모르는 대상으로 轉換하는 것이며 이에, 의식의 빛이 어둠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盲目的 眞理가 體驗을 통하여 입증된다 하여도

타인, 특히 우리의 어린이에게 전달할 수 없기에 우리의 最善인 의식수준의 탐구와 정리가 쌓이면 인간의 意識範圍가 넓어지고, 이를 통하여 유한한 인간의 壽命의 한계에서 완성할 수 없는 人格完成에의 희망이 근거할 바탕이 마련된다.

이러한 절대인격이 “사랑” 또는, “德”이라하여 한 생명의 존재가 더 많은 생명의 存在와 번성에 기여하는 유익함을 意味한다면, 이러한 인격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自己分析” 또는, “賣心”이라 하였으며 自己 人格 完成을 향한 욕구는 인간의 心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욕구를 따르는 것이 道를 따르는 것이요, 個性化이다.

2. 類型論

Jung의 類型論은 內向性과 外向性 그리고, 直觀型, 思考型, 感情型, 感覺型으로 나뉘어져 8가지 유형을 設定한다. 東武는 身體特徵의 구체적 열거를 포함하여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4 類型을 設定한다. 이에 각기 類型을 略述하고 두 先生의 類型의 一致點을 檢討한다.

精神의 四大機能에서 直觀과 感覺은 비합리적 기능이며 思考와 感情은 합리적 기능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것이며 檢證이 가능하다는 부연을 한다.<人間精神의 四大機能은 중요한 概念이기에 原文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思考란 주어진 觀念내용을 그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며 사고가 分化하는 것은 그것이 古類의인 것과 혼동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感情은 무엇보다도 自我와 주어진 내용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그 내용에 받아들든가 돌려보내든가 하는 일정한 價値(快, 不快)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또한 그때 그때의 일시적인 내용이나 일시적인 知覺과 관계없이 따로 ‘氣分’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氣分'은 특정한 의 식내용의 평가는 아니지만 全體의인 瞬間的 意識 狀況의 평가로서 역시 受容, 排斥의 평가이다.

感覺이란 물리적 자극이 認識을 媒介하는 心理 機能이다. 감각은 어린이와 原始人의 가장 특징적 인 本質을 이룬다. 최소한 이들에게 감각은 반드시 직관을 능가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교 나 感情을 넘어서는 기능이다. 直觀은 무의식적 方法으로 認識을 誘導하는 심리기능이다. “직관은 그 把握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의 本能的 把握이다.”

以上の 기능에서 思考와 感情은 相互補償的이고, 感覺과 直觀은 相互補償的이다.

東武는 極蕩하며 直升하는 氣의 太陽人, 極大하며 橫升하는 氣의 少陽人, 極廣하며 放降하는 氣의 太陰人, 極遊하며 陷降하는 氣의 少陰人의 4類型을 말한다.

여기서, 이부영교수는 Jung의 8類型과 東武의 四象은 일치할 수 없으며 일치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斷言을 하지만, 이는 四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疏忽함이다. 두 先生의 學問은 훌륭하나, 서로를 모르기에 가졌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Jung의 개성화를 위한 추구에서 檢證하여 보면, 直觀과 感情은 外向化 되어진 상태에서 그 分化가 大同을 추구하고, 思考와 感覺은 內向化 되어진 상태가 認識을 擴充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內向性 直觀과 感情 그리고, 外向性 思考와 感覺은 大同의 방향성을 認知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한 Jung의 이론적 矛盾이다.

여기서 우리는 <外向性 直觀型=太陽人/外向性 感情型=少陽人/內向性 感覺型=太陰人/內向性 思考型=少陰人> 하는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다. 以上이 正常心理狀態에서의 인간유형이며 正常人의 分化程度에 따라서 神人, 聖人, 眞人, 賢人, 君子로

구분되고, 未分化狀態의 小人輩 그리고, 異常心理 狀態의 鄙薄貪穢의 구분이 가능하다.

3. 心理發顯

心理發顯 次元은 天(好善), 人(惡惡), 行其行(怠心), 行其知(邪心)의 四次元이며 各各 大同 各立 獨行 博通의 단계로 구분되어지며 類型別 具體化에 앞서 편의상 本體質을 “性” 發顯하는 心理狀態를 “氣”라 한다.

太陽人(直觀型)

太陽性이 太陽氣를 發하면 天時(直觀的 豫測:證市 經濟動向 등)에 能하고, 모두를 위하여 哀쓰는 것을 좋아하며 仁에 中하고, 禮를 잊기 쉽다. 이에 耳로 들어 眞假를 구별하는 直觀이 발달함이다.

太陽性이 싫은 것(惡惡)을 피하여 혼자 되면(各立) 少陽氣를 發하여 만나는 사람을 쉽게 사귀고(交遇) 友(義)를 지키며 그 뜻이 용이치 않으면 怒한다. 이를 太陽之脾라 한다.

太陽性이 行함에 게을러 지면 方略을 꾸미며 少陰氣를 받하니, 竊(慾)心を 삼가해야 한다.

太陽性이 생각을 行함(行其知)에 行檢의 太陰氣를 發하니 남을 해치려는 伐心を 삼가해야 한다.

이에 太陽人은 天時의 直升에는 능하나 極廣한 人倫을 지키에 취약하고, 交遇로 스스로를 보호하나 黨與에 소홀하고, 方略(모난策略:臨機應變)으로 안일하려하며 行檢으로 아는 바를 행하려 한다. 또한, 숫새처럼 밖으로 벌리고 꾸미며 암새처럼 안으로 키우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直觀이 內面 心理를 대상으로 分化되면 他人의 心理豫測에 能하여지나, 正常心理를 떠나 사기꾼이 되기 쉽다.

少陽人

少陽性이 少陽氣를 發하면 世會(流行 集會 등)

에 能하여 사람들을 共感 시킴(怒性)을 좋아서 하고, 義에 中하나, 智를 잇기 쉽다. 이에 目으로 사람의 感情을 보는 것에 能한 것이다.

少陽性이 싫은 것을 피하려 하면 是非를 가려 이기려 하여 太陽氣의 事務를 發한다. 이에 슬퍼(哀)하며 忠(仁)을 지킨다. 이를 少陽之肺라 한다.

少陽性이 行함에 게을러 지면 太陰氣인 材幹을 부리니, 스스로를 卑下하는 瀨心을 삼가해야 한다.

少陽性이 아는 것을 行함에 少陰氣인 度量(숫자를 重視함 → 마음이 좁아지면 物質을 重視한다 : 돈 등)을 發하니, 夸心을 삼가해야 한다.

이에 少陽人은 世會의 橫升에는 능하나 極邈한 地方으로 陷降함에는 脆弱하고, 事務로서 是非를 가려 밖에서는 이기려하나 居處에 약해 안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行함에 게을러 지면 材幹을 부리니 自卑心을 주의하고, 아는 것을 行함에 度量으로 하니 夸心을 삼가해야 한다. 少陽人 感情이 內向化에 치우치면 자신의 情動에 沒頭하게 되어 外界와의 연대가 稀薄하여지는 異常心理狀態가 된다.

太陰人

太陰性이 太陰氣를 發하면 人倫에 能하여 두루 사람이 모이며 禮에 中하나, 仁(아는 사람 뿐 아닌,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잇기 쉽다. 이에 鼻(느낌)로서 體驗을 感知하는 데에 能하다.

太陰性이 싫은 것을 피하려 하면 少陰氣의 居處를 發한다. 이에 기뻐(喜)하며 孝(智)를 지킨다. 이를 太陰之腎이라 한다.

太陰性이 行함에 게을러 지면 少陽氣의 威儀를 發하니 驕慢한 마음을 삼가해야 한다.

이에 太陰人은 人倫의 放降에는 능하나 天時의 蕩平한 直升에 취약하고, 居處로서 안을 지키는데 能하나 밖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결국 太陰性

은 直觀이 가장 취약하여 思考나 感情을 直觀으로 盲信하기 쉽다.

少陰人

少陰性이 少陰氣를 發하면 地方에 陷降함을 좋아서 하며 智에 中하나 世會를 잇기 쉽다. 口로서 地方을 맛본다 하여 스스로 생각하여 合理化하는 데에 能하다.

少陰性이 싫어서 피하면 太陰氣의 黨與를 발한다. 이에 즐기며(樂) 上下(禮)를 지킨다. 이를 少陰之肝이라 한다.

少陰性이 行하는데 게을러지면 太陽氣 識見을 發하니, 利益을 뺏으려는(奪利) 擅心을 삼가해야 한다.

少陰性이 아는 것을 行하는데에 少陽氣 經綸을 發하니, 自矜(矜)心을 삼가해야 한다.

이에 少陰人은 地方에 陷降함에 能하나 極大한 世會의 橫升에는 취약하고, 黨與에 能하여 암새처럼 안을 키우나, 숫새처럼 發散하지 못한다. 결국 少陰人은 思考에 能하나 感情에 취약하고, 感覺과 直觀이 未分化되어 마음을 정하는 決斷력이 없다(不安定心).

人間마다 好善之氣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은 聖人과 다른 바 없으나, 少陽人이 天時를 發하려 하면 蕩蕩平平한 天時에 못미치는 事務가 되어 仁에 미치지 못하는 忠이 되고, 少陰人이 天時를 發하려 하면 奪心에 빠지기 쉬운 識見이 되고, 太陰人이 天時를 發하려 하면 驕慢함에 빠지기 쉬운 籌策에 불과하다. 太陽人이 世會를 發하려 하면 極大한 世會의 義에 못미치는 交遇의 友가 되고, 太陰人은 自尊心에 빠지기 쉬운 威儀가 되며 少陰人은 自矜心에 빠지기 쉬운 經綸에 불과하다. 少陰人이 人倫을 發하려 하면 極廣한 人倫의 禮에 미치지 못하는 黨與의 悌를 發하고, 少陽人이 人倫을 發하려 하면 自己卑下에 빠지기 쉬운 材

幹이 되며 太陽人이 人倫을 發하려 하면 伐心에 빠지기 쉬운 行檢에 불과하다. 太陰人이 地方을 發하려 하면 極遡한 地方의 智에 미치지 못하는 居處의 孝가 되고, 太陽人이 地方을 發하려 하면 慾心에 빠지기 쉬운 方略이 되며 少陽人이 地方을 發하려 하면 誇張(夸)하기 쉬운 度量에 불과하다.

4. 東武와 Jung

著者が 책을 쓰는 方式에서 우리는 著者の 類型을 推測할 수 있다. Jung 先生은 少陰人에 가까우며 東武先生은 太陽人에 가까우며 그 제자들이 少陰人에 가까와 보인다. 이는 少陰性의 글은 陷降하며 太陽性은 蕩平하며 少陽性은 橫升하며 太陰性은 方降하니, 經驗方類는 주로 太陰性 著者가, 理論書는 少陰性 著者가, 많은 資料를 列舉 소개하는 類는 少陽性 著者가 주로 執筆함이다.

Jung 先生에 관한 理解는 先生이 직접 쓰는 <回想 꿈 그리고, 思想>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번 정리의 배경이 되기에 재삼 언급을 피한다.

東武先生은 少陰性 弟子의 整理에서 理解의 難解함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에 격치고와 통합하여 보면, 자신의 直觀으로 보여지는 物性을 概念中心의 定理(거의 新造語)를 통하여 實用的으로 정리 하였다. 例로 격치고에서 보여지는 四象卦와 四象人卦 그리고 事心身物卦를 보면 다음과 같다.

四象卦와 四象人卦

太陽 : 太陽卦 = → ≡ 離卦 <中에 一陽을 加하나, 純陽은 人間이 아니기에 太陽만 一陰之心을 加한다.>

少陰 : 少陰卦 = → ≡ 兌卦 <中에 一陽之心을 加한다. 下同>

少陽 : 少陽卦 = → ≡ 選卦

太陰 : 太陰卦 = → ≡ 坎卦

事心身物의 卦에서는 바탕(初卦)이 陽인 太陽과 少陰은 三卦를 陽에서 시작해서 陰으로 마치고, 바탕이 陰인 少陽과 太陰은 三卦를 陰에서 시작해서 陽으로 마친다.

事 : 太陽卦 = 始(乾) ≡ → 終(兌) ≡

心 : 少陰卦 = 急(離) ≡ → 緩(辰) ≡

身 : 少陽卦 = 先(坎) ≡ → 後(選) ≡

物 : 太陰卦 = 本(坤) ≡ → 末(艮) ≡

伏羲八卦와 文王八卦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艮(少陽數7)

少陰位2 ≡

兌(少陰數8)

乾(太陽數9)

少陽位3 ≡

5

太陰位4 ≡

坤(太陰數6)

太陽位1 ≡

離 ≡ 火 <哀>

風 ≡ 利 <欺>

地 ≡ 亨 <保>

辰 ≡ 木 <怒>

兌 ≡ 金 <喜>

坎 ≡ 水 <侮>

天 ≡ 元 <助>

坎 ≡ 水 <樂>

以上에서 보여지듯이 東武는 伏羲八卦에서 相互補償 對極 合一의 法則을 推論하였고, 文王八卦에서 取象하여 사람들이 서로 속이니 슬프고(哀) 나를 업수이 여기니 화나고(怒) 나를 보호하니 기쁘고(喜) 나를 도우니 즐겁다(樂) 하였다.(譯註 : 文王八卦는 右로 一度 돌아가며 卦象을 음미하면 되고, 伏羲八卦의 卦는 位와 數로서 取한 것이다.)

그러므로, 文王八卦에서 艮坤을 地平面으로 보아, 上에 風이 있고 左右에 우뢰와 불이 있고 純陽인 하늘은 땅 밑에도 있으며 그 좌우에 물과

연못이 있다는 直觀的 觀察은, 直觀은 意識에 있어 가장 明瞭하나, 無意識에서 本能的으로 把握함과 一致함을 볼 수 있다.

東武는 自高之心을 追求함에 大同의 德을 重視하였으나, 장수, 권세, 재산 등 물질적 요소를 五福이라 하였으니, 이는 意識이 分化和 個性化를 추구하여 聖賢을 본받으나, 生存은 꼭 그대로 되지 않으니, 德있는 사람도 逼迫 받음은 自古以來 흔한 일이다. 하지만, 生存을 위하여 本性을 벗어나면 人格이 망가지니, 太陽, 少陽의 喜樂과 太陰, 少陰의 哀怒를 들어 東武께서 경계하였다.

5. 體質鑑別論

體質鑑別은 먼저 典型的 體質을 模型化하고, 후에 變形體質 그리고, 體質間의 鑑別을 論하자.

太陽人 : 頭部가 發達하고 下體가 弱하며 眼光이 強하다. 心의 수준이 낮은 太陽人은 어린이와 같다. 평소 疾患이 거의 없고, 아무 고통없이 토하거나, 저린중세 없이 다리에 힘이 없는 중세가 일어난다.

少陽人 : 어깨가 발달하고 臀部의 발달이 부진하다. 皮膚는 건조하며 윤기가 있고 검은색이 보통이다. 眼光이 銳利하며 體毛는 적다. 사람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며 言行에 條理를 중시하지 않는다. 消化器가 좋은 반면 食慾管이 불규칙하기 쉬워 胃酸過多 性向이 있다. 잠귀가 밝은 편이고, 活動的이나 持久力은 약하다. 눈으로 본 것을 記憶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思考하는 능력은 취약하다. 하고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是非를 가리나, 돌아서면 쉬 잊어버린다.

太陰人 : 허리가 발달하고 보통은 골격이 굵다. 피부는 彈力이 적고 肥大하나, 세장형도 많다. 眼光이 弱하고 눈에 쉬 피로를 느낀다. 吸聚之氣의 包容力이 있어서 주위에 사람을 두루 편하게 하나, 本人은 對人關係에서 Stress를 많이 받으니,

표현을 적절히 못하고, 속으로 오래 간직하는 편이다. 땀분비가 발달하였고, 持久力이 좋은 편이며 自律神經系가 脆弱하다. 經驗한 일들을 記憶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少陰氣地方과 少陽氣度量을 直觀으로 誤認하여 追從하는 경우가 많다. 人倫之德을 타고나니 生育하고 生産하는 재주가 뛰어나다.

少陰人 : 둔부가 발달하고 어깨의 발달이 부진하다. 피부의 탄력이 좋으며 기운은 弱하나 강단은 있다. 消化器가 脆弱하나 生殖器가 강하며 眼光은 平溫하다. 體毛가 비교적 많고, 땀의 분비가 적다. 感情의 분화가 脆弱하여, 記憶力이 脆弱하며 思考機能이 分化되어 있다.

變形體質과 體質間의 鑑別 : 變形體質이란 概念은 本體質이 5세 이전에 持續的인 다른 체질의 影響으로 他體質化 하거나, 兒童期 이후로도 本體質을 維持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兒童期 以前의 神聖화된 父母의 象은 서로 相異한 體質일 때에 本性을 抑壓하고 取得氣의 體質化를 誘發하며 師弟關係 또는, 職場上下 關係에서 好善之氣가 아닌 惡惡 또는 行其行이나, 行其知를 好善之氣처럼 發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Jung의 潛在性 分裂과 聯關된 概念이다. 이 경우 好善이 無意識化 되어져, 取得된 氣의 成就是 滿足感이나, 成就感 보다 오히려 Stress로 作用한다. 이 경우 體質의 鑑別은 어려워지며 例로써 太陰之威儀를 好善氣로 取得하면 眼光이 少陽人의 眼光에 怡似하여지며 侈心의 過함으로 本太陰을 알게되는 裏熱證을 日常化한다. 少陰之老人의 識見이 太陽人에 怡似함은 東武도 언급한 바 있고, 少陰人의 經綸은 少陰鬱狂證의 日常化로 極大氣를 發하는 듯이 보이니, 言語의 條理와 內面世界의 外部投射가 가지는 硬直性으로 鑑別이 可能하다. 兒童期의 精神의 外傷은 外形身體에도 變化를 誘發하여 少陰人화된 太陰人, 少陽人화된 太陰人 등, 그 鑑別은

心理分析에 比肩되는 어려움을 內包한다. 결국 各自가 體得해야 할 學問이며, 體得을 自己分析하여 直觀의으로 運用함이 唯一한 解決策이다. 이에 仔細한 部分을 東醫四象大典과 分析心理學에서 얻기를 바랄 뿐이다.

6. 病證 治療論

學問에 先天 後天이 있음이니, 太陽直觀의 少陰 思考的 擴充과 太陰感覺의 少陽度量的 擴充이 그것이다. <東武公自註 : 盖少陰 出太陽而 奪其母神故也, 盖太陰 生少陽而 假其子靈故也, 盖少陽 出太陰而 假其母魂故也, 盖太陽 生少陰而 恃其子魄故也. (以上은 根據 朴奭彦 先生이 부록에 記한, 父母體質과 자식 問의 相關은 身에 치우친 誤診이다.)>

이에 先天學問은 例로 聖經, 佛經, 四書三經 및 四象醫學 그리고, 分析心理學이며 後天學問은 例로 六經傷寒 內傷雜病(五行臟腑論) 五運六氣에 이르는 것이다. 모두가 중요함이나, 先天學問의 自矜心과 後天學問의 夸심이 우리가 경계할 바이다. 이러한 理致의 그림자라도, 아는대로 적으면 宇宙와 人間의 小宇宙인 心은 存在하고, 認識하는 妙合關係로 認識이 存在에 도달하거나, 存在가 認識에 도달하기에는 π 誤差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伏羲八卦와 文王八卦의 誤差가 一致하는 것이다.

自古以來 先天學問이 人身에 到達한 唯一함이 四象哲學에 있다.

太陽人病은 呼散之氣가 過多하여 오고, 太陰人病은 吸聚之氣 過多로 氣의 循環이 안되어 오고, 少陽人病은 火氣橫升으로 消耗性으로 오며, 少陰人病은 水氣陷降으로 代謝停滯되어 얼음이 얼 듯이 온다.

樂의 四性은 溫熱涼寒이며 太陽溫氣를 太陰人에, 太陰涼氣를 太陽人에, 少陰寒氣를 少陽人에,

少陽熱氣를 少陰人에 投與하며 人體를 調和함이 四象醫學의 治療理論이다. 이에 그 性味가 辛甘溫熱之劑는 少陰人 樂이요, 苦涼寒之劑는 少陽人 樂이요, 平淡滋之劑는 太陰人 樂이요, 平淡膩之劑는 太陽人 樂이다.

體質病證의 大略은 다음과 같다.

四象病證을 本體質과 意志의 性情의 歪曲(Persona)의 關係로 보면 그 病證 病理가 確然히 드러난다.

太陽人 : 太陽直觀이 天時나 行檢으로 發病함은 稀少하여 整理된 바 없고, 方略의 慾心에서 外感 腰脊病이, 交遇의 怒情에서 內觸小腸病이 온다.

少陽人 : 少陽感情은 極大之氣이다. 極大之氣의 橫升이 過多하면 怒性이 過多하면 世會之病人 胸膈熱證이 온다. 極大之氣를 直升하려 하면 氣의 消耗가 甚하여져 亡陰(陰虛惡熱)證이 發한다. 極大之氣를 放降시키려하면 太陰之身을 憑하여 亡陰하거나, 太陰之心을 憑하여 結胸證이 온다. 極大之氣를 陷降하려 하면 度量之夸心으로 傷風證이 온다. 少陽氣 太陽氣病은 胃受熱裏熱病이요, 太陰氣 少陰氣病은 脾受寒表寒病이다.

太陰人 : 太陰感覺이 人倫이나 籌策으로 病이 됨은 少하여 整理된 바 없고, 威儀의 侈心이 過多하여 肝受熱裏熱病이, 居處의 喜情이 過多하여 胃脘受寒表寒病이 온다. 결국 太陰人의 吸聚之氣가 世會를 하려 하면 熱結이 되고, 地方에 陷降하려 하면 受寒한다.

少陰人 : 少陰思考는 陷降之氣이다. 陷降之氣의 陷降이 過多하면 地方之病人 少陰病이 온다. 陷降之氣를 放降하려 하면 樂情이 過多하여 氣의 循環이 나빠져서 太陰病이 된다. 陷降之氣를 直升하려 하면 識見의 擅心(奪利)이 過하여져 氣의 消耗가 많으므로, 亡陽證이 된다. 陷降之氣를 橫升하려 하면 氣가 鬱結되어져 經綸之矜心이 過多한,

鬱狂證이 發한다. 少陰氣 太陰氣病은 胃受寒裏寒
病이요, 太陽氣 少陽氣病은 賢受熱表熱病이다.

參 考 文 獻

1. 朴奭彦: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3. 20.
2.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1991. 2. 10.
回想 꿈 그리고 思想, 集文堂, 1989. 11.
30.